

전남도 민선7기 공약 이행 돌파구 찾아라

중앙부처와 협의 지연·국가계획 미반영 등 ‘제동’

서해안철도·흑산공항 등 차질 임기내 마무리 의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2년차를 맞아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의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7기 전남도의 김 지사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앙부처와 협의 지연, 국

가계획 미반영 등 민선7기 초기 제반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약도 속출하는 등 공약 이행에 제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남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김 지사의 공약 7개 분야 26개 과제 139건 중 9건 (종결 2건, 계속추진 7건)을

완료, 공약 이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지난해 완료된 공약은 ▲전남농정위원회 설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처우개선 지원 ▲아동수당 지급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온라인 도민청원제 운영 ▲행정수요에 맞춘 조직개편 ▲서울과 도농상생 협력 강화 ▲남해안권 상생협력 확대 등이다.

이행된 공약이 김 지사가 취임시 실천을 약속한 ‘도민이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계획 미반영 등 제동이 걸린 공약도 적지 않아 임기 내 ‘전 공약 이행’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앙부처와 협의지연, 국가계획 미반영, 도 자체계획 지연 등 13건이 그 대상.

서해안 철도(군산-무안국제공항) 건설, EMU 준고속철도 차량정비기지 구축, 전라선(익산-여수)고속철도 건설 추진, 목포-제주 고속철도 추진 등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돼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완도-고흥 서남해안 관광도로 및 목포-부산 해안관광도로 건설은 국도 미승격 및 국가계획에 미반영됐다.

흑산공항 건설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지연으로,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로 각각 지연되고 있다.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 및 예산 미확보로, 영산강 간척지 통일농업단지 조성은 통일상 생산단지 미착공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또 간척지 등을 활용한 수산양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프로그램 확대·운영, 도민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 지연되고 있다.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용역추진 중으로 추진위 구성이

순연되고 있는 상태다.

민선7기 2년차 올해 전남도는 스마트팜밸리, 도민발전소 등 김 지사의 핵심공약을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스마트팜밸리 경우 전남 미래먹거리를 담보할 중대한 현안으로 지난해 고배를 마신 공모사업의 재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도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도민발전소는 이번달 내 전남도에서 진행된 운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민선7기 출범 후 공약 이행의 큰 틀을 세운 해였다”면서 “올해부터 핵심현안을 비롯해 전남도민이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세부 공약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진상규명 의지 있나?”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정당이 16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추천인사의 프로필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인사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천한 인사의 행적을 보면 진상규명 의지와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며 “5·18 진상규명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면 한국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 3인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추천을 포기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애리 기자

李시장 “한국당, 5·18 조사위원 재추천을”

“진상조사위, 국민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물로 구성돼야”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재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은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인사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

할 수 없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국민적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추천된 위원들은 민주주의 역사에 역행하는 극우 이념

을 가진 군 출신 인사 그리고 과거 5·18 진상규명운동을 폄해한 전력이 있는 언론인과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법조인으로,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려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5·18진상규명조사위의 책임있고 정상적인 활동이 5·18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다”며 “따라서 그 첫걸음인 조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물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자유한국당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광주 오월의 진상규명을 위해 차디 찬 아스팔트 위에서 목 놓아 울고 계신 오월 어머니들의 40년 한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5·18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할 역사적 책무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로 조속히 재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연범 기자

市·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힘 모은다

공동실천 업무협약...광주형일자리 연계하려다 반발도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45년 전 건립한 광주공장의 이전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공장 이전 추진 관련 공동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자리에는 이용섭 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전대진 금호타이어 부사장, 조삼수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표최지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노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등 금호타이어가 지역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광주시-금호타이어(노사) 지속 발전 TF를 구성해 금호타이어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 금호타이어가 추진중인 광주공장의 이전 및 현 광주공장 부지 개발계획

에 대한 행정적 협의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광주시가 협약서에 ‘광주형일지리를 공동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 협약식 행사가 40분가량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광주시는 뒤늦게 해당 문구를 삭제해 협약서를 다시 만들었고, 노조가 수용하고 나서야 협약체결이 이뤄졌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 간의 업무협약에 이어 금호타이어와 미래셋대우 간 광주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금호타이어와 미래셋대우는 송정역 인근 광주공장용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현 공장용지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정하면 구체적인 이전 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금호타이어는 현 공장용지 개발로 얻는 수익은 모두 신공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다이기자 /임후성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TV**

[파워인터뷰]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매일TV-KCTV/광주방송 오성수의 뉴스본식 2019년 1월 둘째주

[파워인터뷰] 박준화 영광농협 조합장

▶ m.kjdaily.tv ▶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정문의 062)650-2024

산업통상자원부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한국에너지공단

겨울철 똑똑한 에너지 절약 리빙라이프

창문에 단열필름 붙이기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 2~3℃ ↑

겨울철 적정실내온도 20℃ 유지하기
1℃ 낮추면 난방비 7% 절감

내복 등 방한용품 입기
목도리는 2.5℃, 내복은 3℃의 체온상승효과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5등급 → 1등급으로 바꾸면 약 30~40% 에너지 절감